

우리나라 창조계층 인력의 통계적 산출과 지역발전 정책의 함의

A Study on Measuring the Creative Class and the Policy Implications
of Regional Development in Korea

구 문 모* · 박 정 수**

Goo, Moon-Mo · Park, Jung-Soo

■ 목 차 ■

- I. 서론
- II. 창조계층 인력의 개념과 선행연구
- III. 우리나라 창조계층 인력의 추이 분석
- IV. 결론 및 시사점

창의적 인력의 중요성이 국가적으로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정량적 추산에 대한 국내의 연구는 희박하다. 본 논문은 플로리다의 창조계층론으로부터 창조계층 인력을 추산하는 과정과 그에 담긴 지역발전과 관련된 정책 함의를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것에 주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도시와 지역발전의 주체로서 창조계층 인력에 대한 통계적 산출을 외국과 비교 가능하도록 플로리다의 방법론을 채용하였다. 아울러 창조계층 인력의 도시 집중화 성향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 주요 광역시별로 창조계층 인력을 세분화하고, 그 인력 분포를 분석하였다. 연구 분석에는 직업별, 지역별 통계산출이 가능한 한국표준직업분류 기준의 “지역별 고용조사” 통계와 입지상계수와 변이-할당분석 모형이 활용되었다. 분석결과 우리나라의 창조계층 인력이 총 직종 인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선진국보다 낮지만 그 증가 추이는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빠른 것으로 파악되었다. 핵심 창조계층 인력보다는 창조적 전문가 인력의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할 전망이다. 지역별 분석 결과 서울특별시를 제외하고는 핵심 창조계

* 한라대학교, 경영사회대 교수(제1저자)

**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제2저자)

논문 접수일: 2014. 1. 29, 심사기간(1, 2차): 2014. 1. 29 ~ 2014. 3. 18, 게재확정일: 2014. 3. 18

층 인력의 도시 집중은 아직 뚜렷하지 않다. 다만, 지식서비스 관련 직종이 많은 창조적 전문가 인력의 도시 집중화는 관찰되었다. 정책적으로는 지역의 창조계층 인력 유인과 육성을 위한 노력 뿐 아니라, 창조계층 자체 인력 풀을 높이기 위해 지방 서비스직종 인력의 창의적 역량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 주제어: 창조경제, 창조계층 인력, 지역발전

Even with the importance of creative employment nationally, a few of domestic research in measuring creative workforce or class has been tried. This article aims to apply the theory of creative class that discussed measurement of creative employment and its policy implications on regional development to Korean case. This research tries to adopt Florida's classification to compare our case with others. Moreover this study analyzes statistically the geographical distribution across main metropolitan cities in Korea to see spacial concentration to cities around 6 domestic metropolitan cities. This study utilized the 9th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 and local area labor force survey supplied by KOSIS with the analysis tools of location quotient and shift-share. The results show that the high growth rate of creative occupations in Korea from 2008 to 2012 and significant concentration of creative professionals rather than super-creative core in some metropolitan cities. It is suggested that some serious practical policy measures are in need towards widening pool of creative class in those cities as well as uplifting creative capacities of service class.

□ Keywords: creative economy, creative class, regional development

I. 서론

창조경제를 주창하는 새 정부는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라는 국정비전과 ‘일자리 중심 창조경제’를 국정목표로 삼고, 우리 사회가 창조성 기반의 새로운 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관심을 기울일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창조경제는 이제 산업화시대, 정보화시대, 지식기반경제를 잇는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으로 인식되고 있다. 창조경제의 운영 원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보다 이를 실행하는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창의성을 많이 지닌 창조계층 인력이다¹⁾. 이를 반영하듯 미국을 비롯한 유럽 등 여러 선진국들은 창조경제의 핵심 축이 창

조계층 인력에 있다는 점을 중시하여 창조계층 인력의 수량적 측정, 국가간 비교, 창조계층 인력의 유치 및 육성 방안 등 다양한 인력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강화, 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 창의와 혁신을 통한 과학기술발전 등이라는 과제로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운영을 실천에 옮기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제를 추진하는 주체로서 창조계층 인력에 관한 세부적인 정책은 아직까지 뚜렷한 실행 방안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 바로 지금이 창조계층 인력의 개념과 정의, 분류, 인력의 수요와 공급 등에 대한 정책 입안자, 정책추진 기관간 그리고 국민들의 보편적 이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창조경제의 핵심 정책 대상인 창조계층의 인력 수급 및 양성에 관한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량적인 산출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다.

그 동안 선진국의 학자들과 정책 수립자들은 자본과 노동 등 생산자원의 이동이 무척 빠른 현대사회에서 창조계층 인력의 확보 유무가 지역발전과 혁신을 이끄는 원동력이라는 점을 입증하고자 하였다. 21세기를 통해 산업경제와 지식경제에 이어 창조경제로 넘어가면서 개인과 집단의 창의성이 국가 경쟁력의 주요 요소라면, 창조계층 인력은 창조경제를 추진하는 주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부각된다. 가령, 1999년에 조사된 미국 창조계층의 인력 수는 전체 취업자에 비해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는 그 비중이 30%를 넘어 서고 있다. 플로리다(2002)는 국가와 지역의 발전 논리로서 기업과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프라를 우선시하는 것에서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창조계층 인력의 유치와 육성이 성장 동력원이라는 소위 “창조계층론”을 주장하였다.

본 연구는 창조계층론에 대한 새로운 검증보다는 그 논리적 재료로 사용되는 창조계층 인력에 대한 통계적 산출과 지역발전에 대한 정책 함의를 도출하였다. 창조계층 인력의 양적 측정은 플로리다의 분류와 산출 방식을 차용하고 있는데, 이는 다양한 이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편적인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국가간 비교 연구에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창조계층 인력의 양적 수준을 전국과 지방의 주요 광역시 차원에서 파악하는 데 1차적 연구목적이 있다²⁾.

1) Florida(2002:13, 44)는 창조경제를 “경제성장의 근원으로서 창조성의 역할과 이를 수행하는 창조계층의 부상”이 강조되는 경제를 말하며, 따라서 직업의 관점에서 창조경제를 규정한 것이 특징이라고 언급하였다.

2) 정량적 산출의 기존 연구에 대한 한계는 본문의 국내 연구사례에 설명되어 있다.

II. 창조계층 인력의 개념과 선행연구

1. 창조경제와 창조계층론

1) 창조계층론의 등장 배경

창조계층 인력은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계층이나 직업군의 등장이란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 과거 서구 자본주의 발전 과정에서 경제적 부가가치와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새로운 계층에 관한 연구가 종종 있었다. 대표적인 예로써, D. Bell(1973)은 후기산업사회의 특징으로 지식계층(knowledge class)의 출현을 지적하였고, R. Reich(1992)는 '상징적 분석적 서비스'에 종사하는 계층의 등장을 예측하였다³⁾. 여기서 창조계층론이란 창조계층 인력의 등장이 도시와 지역의 경제성장에 새로운 동력원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그런 인력은 특정한 환경이 조성된 곳, 즉 "장소"를 선호하기 때문에 장소의 조성은 창조계층 인력을 유인하고 따라서 경제성장의 동인이 된다는 것을 말한다(플로리다, 2002). 그는 도시 인구 규모별로 창조지수와 도시의 경제발전에 대한 통계적 검증하였는데, 다양한 창조계층 인력이 분포된 것으로 예상되는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를 상정하고 논의를 전개하였다(이영철, 2009: 35). 창조계층론은 "기업이 있는 곳으로 사람이 이동한다(People-To-Job)"는 일자리 창출에 관한 기존 인식이 아닌 "창조인력이 풍부한 곳으로 기업이 이동한다(Job-To-People)"고 하여 새로운 정책적 논거를 제공하였다. 그의 연구는 "누가 창조계층 인력인가?"라는 논의를 불러 일으켰고, 개념적인 모호성과 각 나라가 처한 환경에 따라 적용되기 어려운 측면 등 보편적인 적용에 대한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다(Glaeser, 2005; Markusen, 2006; McGranahan & Wojan 2007; Clifton, 2008).

창조계층 인력과 관련한 학자들의 연구는 두 가지 방향으로 구분될 수 있다. 하나는 창조계층 인력의 개념과 관련하여 보편적으로 정리된 것이 있는가? 즉, 창조계층 인력의 정체성에 관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창조계층 인력의 정량적 산출에 관한 논의다. 특히 창조계층 인력에 대한 산출은 정책 수립자에게는 당면한 과제이다. 이는 창조계층 인력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하고, 정책대상의 창조계층 인력은 누구이며, 그 수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만 정책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3) 여기서 상징적 분석적 서비스란 문제 식별과 해결, 전략적 거래활동 등을 포함하는 것이며 지식과 정보 등을 처리하는 일이 주 업무라는 것을 의미한다(강익희 외, 2010, p. 29 참조).

2) R. Florida의 창조계층 인력

Florida는 *the rise of the creative class*(2002)에서 창조계층 인력을 자율성과 융통성을 기반으로 창의적 활동을 한 대가를 위해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부류의 직종 인력으로 이해하고 이를 핵심 창조계층 인력(Super-Creative Core)과 창조적 전문가 집단(Creative Professional)으로 구분하였다(〈표 1〉 참조). 핵심 창조계층 인력에는 과학자, 엔지니어, 대학교수, 시인, 소설가, 예술가, 연예인, 배우, 디자이너, 건축가 등이, 창조적 전문가에는 첨단기술업종, 금융서비스, 법률과 보건의료, 경영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포함되며, 이들은 광범위한 지식집약형산업에 주로 종사하고 있다. 또한 비창조계층 인력은 서비스직종 인력과 노동자직종 인력으로 구분하였다. 서비스직종 인력은 창조계층 인력에 비해 업무의 자율성이 낮은 반면, 이미 정해진 계획에 따라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부류의 직종 인력을 의미한다. 노동자직종 인력은 생산직, 운송, 원료 수송, 보수, 관리, 건설공사 등 자율성은 낮지만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업무가 많은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뜻한다.

〈표 1〉 Florida의 직종 분류⁴⁾

| 직업군 | 대표 직종(대분류 기준) ⁵⁾ | 국제표준직업 분류(ISCO-88 코드) |
|---------|--|--|
| 창조계층 인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컴퓨터와 수학과 관련된 직종 • 건축과 엔지니어링 직종 • 생명, 물리과학, 사회과학 직종 • 교육, 훈련, 사서 관련 직종 • 미술, 디자인, 연예, 오락, 스포츠 미디어 관련 직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컴퓨터 전문가(213) • 수학, 통계 관련 직종(212) • 건축, 엔지니어 전문가(214) • 생명과학 전문가(221) • 물리학, 화학 전문가(211) • 사회과학 전문가(244) • 대학 교수(231) • 중등교사(232) • 초등, 취학전교사(233) • 특수교사(234) • 기타교사(235) • 기록원, 사서(243) • 작가, 공연예술가(245) • 사진작가, 시각, 음향 녹음 전문가(3131) • 예술가, 엔터테이너, 스포츠 전문가(347) • 패션, 기타 모델(521) |

4) 그러나 각 직종에서 요구되는 창의력 수준에 대한 평가의 차이로 인해 학자에 따라서는 다른 분류 방식을 채택하기도 한다(McGranahan & Wojan, 2007, p. 201-202).

| 직업군 | 대표 직종(대분류 기준) ⁵⁾ | 국제표준직업 분류(ISCO-88 코드) |
|---------|---|--|
| 창조적 전문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 직종 • 사업과 재정운영 직종 • 법률 관련 직종 • 건강관리, 개업의와 전문 직종 • 고소득의 판매와 판매 관리 직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위공무원 및 관리자(1) • 사업 전문가(241) • 사업서비스 전문가(342) • 법률서비스 전문가(242) • 보건의료서비스 전문가(222) • 간호사, 조산원(223) • 생명과학, 헬스 전문가(32) • 물리, 엔지니어링 전문가(31) • 금융, 판매 전문가(341) |

자료 : Florida(2002), pp.328-329.

주: 국제표준직업분류 코드는 Florida 대분류를 적용한 Fritsch and Stuetzer(2009), pp.25.

이러한 직종분류에 근거하여 살펴본, 미국의 인력구조는 지난 1900년대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창조계층 인력 중심으로 전환되었다. 플로리다(2002)에 의하면, 미국의 전체 직종에서 차지하는 창조계층 인력은 1950년 16.6%에서 1980년 18.7%, 1991년 25.4%, 1999년 30.1%로 증가한 반면, 제조업계층과 농업계층이 많이 포함된 노동자계층 인력은 급격히 줄어들었다. 미국의 계층별 임금 비중을 보면 창조계층 인력이 다른 계층 인력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6년 전체 직종 인구 중 31.0%를 차지하는 창조계층 인력의 임금비중은 거의 50%에 해당되나, 서비스직종 인력과 노동자직종 인력은 인구비중에 비해 임금비중은 오히려 낮다.

<표 2> 미국의 직종별 인력 구조 변화

단위: %

| | 창조계층 인력 | 노동자직종인력 | 서비스직종 인력 | 농업직종 인력 |
|-------|------------|---------|----------|---------|
| 1900년 | 10.0(2.4) | 35.8 | 16.7 | 37.5 |
| 1950년 | 16.6(4.4) | 41.1 | 30.5 | 11.9 |
| 1980년 | 18.7(8.2) | 31.7 | 46.2 | 2.8 |
| 1991년 | 25.4(9.2) | 26.0 | 45.7 | 3.0 |
| 1999년 | 30.1(11.7) | 26.1 | 43.4 | 0.4 |

자료: Florida(2002), p. 120에서 인용.

주1: ()는 핵심창조계층 인력을 의미.

또한 플로리다는 *The Flight of the Creative Class*(2007)에서 창의성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경제발전의 3T(Technology, Talent, Tolerance) 이론을 제시하였다. 즉, 지역의

5) 직업분류 3단위 기준으로는 32개 직종이다.

발전이 3T에서 오고, 혁신과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은 세 가지 요소를 모두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경제성장은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 개방적인 장소를 선호(Tolerant)하는 창의적 인력(Talent)에 의해 추진되기 때문에, 자신들의 거주 지역에 첨단 산업(Technology)을 유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그는 지역의 발전과 성장은 기업들의 역할과 활동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전통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창의적 인재의 확보 여부에 좌우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그는 지역이 경제적으로 성장하려면 창조계층 인력이 선호하는 환경과 인프라를 갖추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그는 자본과 노동 등 생산자원의 이동성이 점증하는 사회일수록 창조계층 인력의 존재 유무가 한 나라와 지역발전의 혁신을 이끌고 부를 창출하는 원동력이라는 점을 현실적으로 밝히는 데 주력하였다.

2. 창조계층론 비판

창조계층론은 지역과 국가의 경제발전이 창의성에 의존하며, 창의성을 보유한 인재들은 이동성이 크므로, 앞으로 어떤 지역이나 창의적 인재를 많이 확보한다면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창조계층론의 정책적 함의는 창조계층 인력들이 선호하는 환경인 관용적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지역 발전에 바람직하다는 것으로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정책 근거를 제공했다는 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Florida의 창조계층론은 학계로부터 적지 않은 비판도 받고 있다.

우선 창조계층론의 논리와 기존의 문화경제적 논리를 어떻게 충돌 없이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비판이다. 창조계층론은 창의적 개인들을 유치하면 이들이 사업과 혁신을 이끌고, 나아가 다른 영역의 사업과 고급계층 등을 유인해서 지역발전이 되고 이런 선순환에 의해 경제성장이 달성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또한 관용적인 분위기, 다양한 문화 어메니티와 첨단기술 인프라 등의 정책방안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된다. 그러나 어메니티의 한 영역으로서 문화가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논리는 기존의 문화경제학적 연구에서도 입증된 바 있다. 따라서 창조계층론이 주장하는 창조계층 인력의 역할과 문화경제학이 입증한 사실과 어떻게 구분해서 해석할 수 있는지 아니면, 문화경제학적 논리를 창조계층 인력의 일부만으로 해석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아직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Markusen & Gadwa, 2010; Grodach, 2011).

또한 창조계층론은 도시의 다양성과 관용을 나타내는 변수로 동성애자(gay)지수, 보헤미안 지수, 외국 출신 주민 지수의 합으로 다양성 지수를 통해 측정하였다. 그러나 다양성 지수

를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되었다. 첫째, 보헤미안 라이프스타일이 많은 지역이 창조계층 인력을 유인한다고 창조계층론은 주장하지만, 다른 연구에서는 정반대의 경우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논리가 제기되었다. 1990년대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일부 첨단도시들을 보면 일반적인 요소로서 삶의 질이 우수한 곳이지 보헤미안 스타일은 전혀 아니라는 것이다. 다음으로 동성애자의 비중이 도시 발전과 거의 관련이 없다는 연구 결과도 제시되었다(Glaeser, 2005; Clark, 2009). 창조계층 인력의 입지성향도 일괄적으로 설명될 수 없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는데, 이는 법률가, 엔지니어, 예술가 등의 훈련과정이나 경력 축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지역이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가령, 엔지니어들은 연구개발 환경이 잘 조성된 도심 외곽지역을 선호하지만, 변호사들은 도심의 다운타운을 선호한다(Markusen, 2006). 이 밖에도 다양한 비판이 학자들로부터 제시되었다(김준홍, 2012). 첫째, 창조계층 인력은 전통적인 인적자본론의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에 전적으로 새로운 이론이 아니라는 비판이다(Glaeser, 2005; Pratt, 2008). 둘째, 창조계층 인력의 직종, 즉 창조적 직종(creative occupation)간에도 상당한 차별성이 있고, 특히 예술가 집단의 독특성이 무시되었다는 비판이다(Markusen, 2006). 셋째, 관용성 개념과 지수가 명확하지 못하다는 비판이다. 넷째, 창조계층론은 도시간 신자유주의적 경쟁을 심화시키고, 동시에 계층간 소득불평등을 야기한다는 비판이다(Gibson & Klocker, 2005; Donegan & Lowe, 2008). 다섯째, 인과성(causality)에 대한 비판이다. 즉, 창조계층 인력의 유인이 도시경제 발전을 초래하는지, 아니면, 그 반대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이다(Baycan-Levent, 2010; Markusen, 2006; Peck, 2005; Reese & Sands, 2010).

3. 창조계층 인력의 통계적 산출에 관한 국내외 사례

1) 해외 사례 연구

창조계층 인력에 관한 정량적 측정 연구는 두 가지 방법론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나는 창조산업에 종사하는 계층을 창조계층 인력의 핵심층으로 이해하고 각국의 산업분류기준에 의한 종사자 수로서 측정하는 것이고(DCMS, 1998, 2001; Boix et al. 2010; Curran & Van Egeraat 2010; White, 2010), 다른 하나는 Florida의 분류, 즉 창조계층 인력에 속하는 직종의 고용자 수로 측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방법론은 해결해야 할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 창조산업 종사자를 창조계층 인력으로 분류해서 분석하는 것은 타당할 수 있지만, 이 종사자들은 전체 창조계층 인력 중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창조산업 이외의 산업에서 종사하는 창조계층 인력들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 큰 단점이다. Florida의 양

적 측정 방법은 연구하는 학자마다 창조계층 인력에 대한 분류가 약간씩 변형되어 측정하는 것이다. 고학력자나 첨단산업 종사자들을 무비판적으로 창조계층 인력으로 분류함으로써 인적자본론이나 지식자본론과 구분이 모호하게 된다는 점이다. 또한 그의 이론은 “모든 사람이 창의성을 갖고 있다”는 인간의 창의성 개념에 비취볼 때 협의의 개념 또는 엘리트주의적 시각이라는 비판을 받는다(Peck, 2005: 760).

창조계층 인력에 대한 국제간 비교연구도 이어지고 있다. Florida(2008)가 직종 기준으로 유럽의 주요 국가와 미국, 캐나다 등의 창조계층 인구수 측정을 시도한 이래, Clifton(2008), Clifton & Cooke(2009), Boschma & Fritsch(2009), Fritsch & Stuetzer(2009) 등은 Florida의 분류에 따라 유럽의 주요 국가들의 창조계층 인력 수를 측정하였다.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창조계층 인력의 산출이나 직종분류에 의한 창조계층 인력 산출의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방법도 모색되었다. Gabe(2006), McGrandhan & Wojan(2007) 등은 Florida의 창조계층 인력 중 일부를 제외한 것으로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Higgs et al. (2008), Clark (2009), DCMS (2010) 등은 산업분류와 직업분류를 혼합해서 창조계층 인력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창조계층 인력을 정확하게 측정하려는 끊임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누가 창조계층 인력인가”라는 점에 보편적 개념 정립이 학자들 간에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2) 국내 사례 연구

국내에서 창조계층 인력에 대한 연구는 아주 기초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선행연구의 대부분은 대체로 Florida의 창조계층론에 입각하여 특수한 업종을 중심으로 종사자 수를 산출하는 것과 창조산업 또는 문화산업 종사자 수를 산출하는 것으로 나뉠 수 있다. 신성희(2006)는 창조계층 인력 전체를 다루지 않고, IT와 만화산업을 대상으로 종사자 수를 조사했으며, 정선기(2009:9-10)는 Florida의 핵심계층 개념을 기초로 표준산업분류에서 제조업, 사업서비스, 문화산업, 교육서비스로 분류해서 종사자 수를 산출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창의적 인력”이란 개념이라기보다는 단순히 창조산업에 속한 종사자 수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창조계층론과는 논의를 달리한다. 창조계층 인력 연구의 또 다른 부류로는 Florida의 “창조계층론”을 이론적으로 평가하거나 Florida의 직업군에 따라 창조계층 인력의 규모를 정량적으로 산출하려는 시도이다. 김필수 외(2013)는 2005-2010년 동안 직종별 종사자 수를 창조직업(창조전문직업, 핵심창조직업, 보헤미안직업)과 비창조직업의 추이를 파악하고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통계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추정치이고 지역 분포의 분석은 없어 지역화 성향을 파악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이대창(2013)은 2008-2012년 통

계청의 “지역별고용조사”(중분류 기준)를 이용해 창조직군의 분포를 산출하여 전국 163개 시군에서 그 분포와 지역발전에 대한 영향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조사 대상이 163개 시군으로 한정되어 있고, 이용한 통계 자체가 창조핵심직군과 창조전문가직군을 구분하지 못해 구체적인 해석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김영수(2013)는 10% 표준조사 자료인 통계청의 “인구총조사”에 나타난 산업별 직업별 종사자 기준으로 창의계층을 핵심, 전문인력, 문화예술인력 등으로 구분하여 2000년부터 2010년까지 5년 단위로 그 추이와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그는 직업분류 2단위 기준이 원천 자료와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밝히지 않았고, 인구총조사 자료를 이용했기 때문에 2011년 이후 통계 분석이 불가능한 단점이 있다.

본 연구는 창조계층 직종 분류 방식에서 학자마다 차이가 있지만, 여전히 보편적으로 비교 연구에 활용되는 Florida의 분류 방식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적용하고 통계청의 2008-2011년 지역별고용조사 자료를 이용한다. 아울러 창조계층 인력의 세 분류와 국내 주요 광역시를 대상으로 지리적 분포 분석을 통해 지역발전에 관한 정책 함의를 찾고자 한다.

Ⅲ. 우리나라 창조계층 인력의 추이 분석

1. 우리나라 창조계층 인력 추이 분석

1) 창조계층 인력 산출 방식

본 연구는 R. Florida가 사용한 직종분류를 기준으로 창조계층 인력의 양적 측정에 보다 관심을 두었다. 그의 연구는 “무엇을 만드느냐”가 산업분류라면, “무엇을 하느냐”는 직종분류에 관한 것으로 창의적 업종으로 분류된 분야 밖에서 일어나는 창의적 활동은 정량적 산출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산업분류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직종별 인력 수 산출은 통계청이 공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지역별 고용조사”를 활용하였으며, 주요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서울을 비롯한 부산, 인천, 대전, 대구, 광주 등 6개만 분석하였다⁶⁾.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세세단위로 오랜 기간에 걸쳐 고용 통계를 생산하고 있는 반면,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연간 직

6) 우리나라는 서울특별시를 제외하고 전국에 6대 광역시를 두고 있으나, 1995년 지방자치법에 의해 울산시를 제외한 6대 도시는 1980년대 이전 혹은 이때부터 직할시로 운영되었고, 1995년에는 이들 모두가 직할시에서 광역시로 출범하였다. 지역 집중화는 오랜 동안에 걸쳐 일어나는 현상이므로 1997년부터 광역시로 승격된 울산시는 동일한 선상에서의 통계 분석을 위해 제외하였다.

종별, 지역별 인력 수는 2008년부터 통계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분석기간은 2008~2012년으로 한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창조계층 인력에서 속한 직종 분류를 플로리다가 제시한 분류를 그대로 따랐으며(〈표 1〉 참조), 이를 기본으로 한국표준직업분류표에서 선별하여 각 계층 직종 인력을 분류하였다. 〈표 3〉은 창조계층 인력을 핵심 창조계층 인력과 창조적 전문가로 구분한 것이다.

분류코드 23은 공학 전문가 및 기술직으로, 그리고 분류코드 25는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으로, 분류코드 28은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으로 하여 이상을 핵심 창조계층 인력으로 집계될 수 있다. 그러나 분류코드 21인 과학 전문가 및 관련직과 분류코드 22의 정보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이 통계에는 분리가 되어 있지 않아 본 분석에서는 그 둘을 합쳐 과학전문가 및 인문사회과학 전문가로 하였다. 또 다른 창조계층 인력인 창조적 전문가 집단으로는 다음 직종이 해당된다. 분류코드 1(관리자)은 전국 통계에는 공공 및 기업고위직(11), 행정 및 경영지원관리직(12)과 전문서비스(13), 건설, 전기, 생산관리자(14), 판매관리직(15)로 구분되어 있다. 그러나 창조적 전문가 집단을 지역별로 구분하는 통계는 관리자(1)이 세부 단위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창조적 전문가 집단에 속하지 않는 사회복지, 종교직이 보건, 의료, 건강 관련 전문가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

2) 우리나라의 창조계층 인력 산출

한국표준직업분류를 기준으로 2008~2012년 동안 우리나라 국민 전체 중 창조계층 인구수를 파악할 수 있다. 우리나라 창조계층 인구수는 2012년에 총 취업자 수의 19.1%에 해당하는 471만 5,000 명으로 집계되었으며 동기간 연평균 증가율은 1.2%를 기록하였다⁷⁾. 특히, 창조계층 인력에서 핵심 창조계층 인력은 298만 1,000 명이고, 총 취업자 수의 12.1%를 차지하고 있다. 그 밖의 주요국 창조계층 인력 비중을 보면 2001년을 기준으로 영국은 36.3%, 독일은 33.3%, 핀란드 33.4%, 스웨덴 29.8%로 우리나라보다는 모두 10%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Cruz & Teixeira, 2012). 그 결과 우리나라의 핵심 창조계층 인력은 미국과 비슷한 비중을 보인 반면 창조적 전문가 집단의 비중이 미국에 비해 월등히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차이는 우리나라의 비창조계층 인력 비중에서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 창조계층 인력을 뒷받침하는 서비스직종 인력의 비중이 우리나라가 약 55%로, 미국(43%)보다 10% 높으며, 노동자직종 인력은 거의 유사한 비중을 보이고 있다.

7) 2010년 기준으로 김필수(2013)는 창조계층 인력을 443만 명(총 취업자 수 대비 18.4%)으로, 김영수(2013)는 493만 명(22.2%), 본 연구는 431만 명(17.9%)으로 조사하였다.

〈표 3〉 한국표준직업분류표에 의한 우리나라의 창조계층 인력 분류⁸⁾

| 코드 | 직업분류명 | 코드 | 직업분류명 |
|-------------------|----------------------------|----------------|--------------------------|
| 핵심 창조계층 인력 | | 창조적 전문가 | |
| 2 |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 1 | 관리자 |
| 21 | 과학 전문가 및 관련직 | 11 | 공공 및 기업 고위직 |
| 211 | 생명 및 자연과학 관련 전문가 | 111 | 의회의원·고위공무원 및 공공단체 임원 |
| 212 | 인문 및 사회과학 전문가 | 112 | 기업고위임원 |
| 213 | 생명 및 자연과학 관련 시험원 | 12 | 행정 및 경영지원 관리직 |
| 22 | 정보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 | 120 | 행정 및 경영지원 관리자 |
| 221 | 컴퓨터 하드웨어 및 통신공학 전문가 | 13 | 전문서비스 관리직 |
| 222 | 정보시스템 개발 전문가 | 131 | 연구·교육 및 법률 관련 관리자 |
| 223 | 정보시스템 운영자 | 132 | 보험 및 금융 관리자 |
| 224 | 통신 및 방송송출 장비 기사 | 133 | 보건 및 사회복지 관련 관리자 |
| 23 | 공학 전문가 및 기술직 | 134 | 문화·예술·디자인 및 영상 관련 관리자 |
| 231 | 건축 및 토목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 135 | 정보통신 관련 관리자 |
| 232 | 화학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 139 | 기타 전문서비스 관리자 |
| 233 | 금속·재료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 14 | 건설·전기 및 생산 관련 관리직 |
| 234 | 환경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 141 | 건설·전기 및 생산 관련 관리자 |
| 235 | 전기·전자 및 기계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 149 | 기타 건설·전기 및 생산 관련 관리자 |
| 236 | 안전관리 및 검사원 | 15 | 판매 및 고객서비스 관리직 |
| 237 | 항공기·선박 기관사 및 관제사 | 151 | 판매 및 운송 관리자 |
| 239 | 기타 공학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 152 | 고객서비스 관리자 |
| 25 |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 | 153 | 환경·청소 및 경비 관련 관리자 |
| 251 | 대학 교수 및 강사 | 159 | 기타 판매 및 고객 서비스 관리자 |
| 252 | 학교 교사 | 241 | 의료진료 전문가 |
| 253 | 유치원 교사 | 242 | 약사 및 한약사 |
| 254 | 문리·기술 및 예능 강사 | 243 | 간호사 |
| 259 | 기타 교육 전문가 | 244 | 영양사 |
| 28 |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 | 245 | 치료사 및 의료기사 |
| 281 | 작가·기자 및 출판 전문가 | 246 | 보건의료관련 종사자 |
| 282 | 큐레이터·사서 및 기록물관리사 | 26 | 법률 및 행정 전문직 |
| 283 | 연극·영화 및 영상 전문가 | 261 | 법률 전문가 |
| 284 | 화가·사진가 및 공연예술가 | 262 | 행정 전문가 |
| 285 | 디자이너 | 27 | 경영·금융전문가 및 관련직 |

8)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창조계층 직종 구분은 〈표 1〉의 Florida 직종 분류에 제시된 국제표준직업분류의 내용과 대조하여 선별된 것이다.

| 코드 | 직업분류명 | 코드 | 직업분류명 |
|-----|-----------------------|-----|-------------------|
| 286 |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 | 271 | 인사 및 경영 전문가 |
| 289 | 매니저 및 기타 문화·예술 관련 종사자 | 272 | 금융 및 보험 전문가 |
| | | 273 | 상품 기획·홍보 및 조사 전문가 |
| | | 274 | 기술영업 및 중개 관련 전문가 |

<표 4> 우리나라 전체 창조계층 인력 수 산출 및 추이

단위: 천 명, %

|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연평균 증가율 |
|--------------------------|--------|--------|--------|--------|--------|---------|
| 핵심 창조계층 인력 | | | | | | |
| 연구 전문가, 기술직 | 1,080 | 1,125 | 1,063 | 1,181 | 1,246 | 2.9 |
|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 | 1,355 | 1,387 | 1,337 | 1,275 | 1,241 | -1.7 |
| 문화, 예술, 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 | 416 | 418 | 460 | 500 | 496 | 3.6 |
| 소계(①) | 2,851 | 2,930 | 2,860 | 2,956 | 2,983 | 0.9 |
| 창조적 전문가 | | | | | | |
| 공공, 기업고위직, 행정 및 경영지원관리 | 47 | 24 | 27 | 51 | 75 | 9.8 |
| 전문서비스, 건설/전기/생산관리자 | 383 | 281 | 238 | 302 | 350 | -1.8 |
| 의료 및 건강 관련 전문가 | 571 | 599 | 650 | 670 | 662 | 3.0 |
| 법률, 행정, 경영, 금융 전문가 및 관련직 | 601 | 669 | 534 | 671 | 645 | 1.4 |
| 소계(②) | 1,602 | 1,573 | 1,449 | 1,694 | 1,732 | 1.6 |
| 합계(①+②) | 4,451 | 4,503 | 4,309 | 4,650 | 4,715 | 1.2 |
| 총 취업자 수 | 23,847 | 23,856 | 24,054 | 24,260 | 24,697 | 0.7 |

자료: 통계청 홈페이지(KOSIS)의 지역별 고용조사.

주 1: 연구 전문가, 기술직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과학전문가 및 관련직, 정보통신전문가 및 관련직, 공학전문가 및 관련직을 의미.

세부 직업군으로 보면 직업간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교육전문가 및 관련 직종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며, 공공, 기업고위직, 행정 및 경영지원관리직은 9.8%나 증가하였다. 연구 전문가와 기술직 그리고 문화예술, 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 의료, 보건, 사회복지 관련직 등은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으나, 전문서비스, 건설/전기/생산관리자는 2009~2011년 동안 비교적 많은 일자리가 손실되었기 때문에 연평균 1.8%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 창조계층 인력에서는 문화, 예술, 스포츠 분야가 5년간 매년 3.6%씩 증가하여 핵심 창조

계층 인력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그 결과 핵심 창조계층의 인력 수는 0.9%씩 매우 완만하게 증가한 반면, 창조적 전문가 집단은 이보다 높은 1.6%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주요 광역시별 분포 분석

1) 분석 방법

플로리다(2002, 2008)는 “신창조계층(급)”과 “도시와 창조계층”에서 창조계층 인력이 여러 지역으로 분산되지 않고 도시 집중화하는 성향을 입증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어떤 요소들이 이들의 도시 집중화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였다. 여기에서는 단순히 주요 광역시에 창조계층 인력 수가 얼마나 분포되어 있는지 산출해 보고, 조사기간 동안 수치적으로 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지에만 한정한다⁹⁾. 창조계층 인력의 지역별 집중도를 이해하기 위해 입지상계수(LQ: Location Quotient)¹⁰⁾를 조사하였다. 입지상계수는 특정 지역의 입지상 계수가 2라면, 그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창조계층 인력을 두 배나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창조계층 인력의 성장이 지역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고자 변이-할당 분석 모형을 설정하였다. 우리나라의 주요 광역시에서 창조계층 인력 수 증가 추세를 살펴 보면서 지역의 창조계층 인력 수 증감이 국가 전체의 고용 변화에 비해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를 관찰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의 창조계층 고용 창출력 효과와 향후 지역에 가져다 줄 창조계층 인력의 지역경제 발전 효과를 예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이 분석은 고용 변화의 원인은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Gabe, 2006, pp. 397). 이 분석에서는 한국표준직업분류의 “지역별 고용조사” 통계에 의한 국내 창조계층의 인구수를 분석하였다. 변이-할당 분석기법은 다양한 경제변수와 관련된 쟁점을 다루기 위해 사용되며, 특히 특정한 지역과 산업에서 고용인력 수나 산출액 등의 변화를 국민 경제 전체의 성장효과(NS :national share effect), 해당 지역의 산업구조 효과(IM: industry mix effect),

9) 창조계층 인력의 입지상 계수 기준으로 도시별 순위를 조사한 연구의 예는 Clifton(2008), pp. 72.

10) 입지상 계수 공식: $LQ_i = \frac{E_i^r / E^r}{E_i^n / E^n}$ E_i^r : 지역 r의 i 직종 인력 수, E^r : 지역 r의 전 직종

인력 수, E_i^n : 전국 i직종 인력 수, E^n : 전국 전 직종 인력 수

해당 지역의 전반적인 성장효과(RS: regional shift) 등의 성분으로 분석한다. 특히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나타난 창조계층의 고용자 수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시도한다. 해당 광역시의 창조계층 고용변화를 간단하게 4가지 성분으로 분해한 분석방법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해당 지역의 창조계층(고용)변화 = NS + IM + RS으로 된다¹¹⁾.

2) 우리나라의 주요 광역시별 창조계층 인력 분포

이하에서는 우리나라 주요 광역시별 창조계층 인력을 한국표준직업분류 중분류 기준으로 살펴보고, 이어 입지상계수와 변이-할당 분석을 통해 지역별 직종 인력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먼저, 2012년 창조계층 인력의 주요 광역시별 분포를 보면, 창조계층 인력의 직업군 중 '교육전문가 및 관련직'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은 '보건, 의료, 건강, 사회복지 관련 전문가'와 '경영금융 전문가 및 관련직'으로 창조적 전문가 집단이고, 이어서 핵심 창조계층 인력으로 '공학전문가 및 기술직', '과학 및 인문사회 전문가', '문화, 예술, 스포츠 및 관련직' 등의 순으로 분포되어 있다. 광역시별 창조계층 인력의 분포에서는 직종간 차이와 광역시별 차이를 파악할 수 있다. 서울과 지방간 창조계층 인력 분포 격차는 대체로 '문화, 예술, 스포츠 및 관련직'과 '과학 및 인문사회 전문가'에서 크게 나타났다. 특히 '과학 및 인문사회 전문가'에서 서울과 지방 광역시간 비교적 큰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광역시별 창조계층 인력 분포의 특징을 보면 서울특별시는 지역내 전체 창조계층 인력 수 가운데 과학 및 인문사회 전문가 직종과 경영, 금융 전문가 직종에서 가장 많지만, 그 밖의 직종에서 오히려 다른 광역시가 역내 창조계층 인력 대비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직종군에 따라 지방광역시에서 창조직종을 중심으로 특화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지역내 총직종 대비 창조계층 직종 인력 비중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전체 인구 수 가운데¹²⁾ 서울에 이어 2위를 차지한 부산광역시의 경우 그 비중이 2008년과 2012년

11) NS는 특정 지역의 고용 증가 분 중에서 국가 전체의 고용 성장으로 유발된 고용의 증가 분을 의미함. 이는 지역의 성장이 국가 전체 성장과 무관한 상태에서 이루어질 수 없으며, 국가 전체의 성장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IM(또는 OM: occupational mix effect)은 특정 지역의 고용구조(또는 산업구조)를 알려주는 지표로서 값이 클수록 고용구조는 양호한 것으로 해석됨. RS는 지역경제의 수행능력에 따라 나타나기 때문에 지역수행효과(regional performance effect)를 말함. 이는 그 지역이 갖고 있는 특수성, 가령, 시장 입지, 운송의 편이, 인구유입, 기타 입지요소 등 해당 지역의 타 지역에 대한 상대적 경쟁력을 의미함. 해당 지역의 성장효과는 지역의 비교우위(comparative advantage component)와 할당요소(allocation component)로 세분화될 수 있음(Esteban-Marquillas, 1972). 비교우위 요소(CAC)는 전국의 동일 직종과 비교해서 해당 지역의 해당 직종의 비교우위를 나타내며, 할당요소(AC)는 지역 특정 직종의 전문화 정도를 의미한다(Herzog & Olsen, 1977; Lamache, Srinath & Ray, 2003).

모두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 대전광역시에는 전체 인구 수가 6위이나 창조계층 인력 수 기준으로는 지난 5년간 2위를 유지하고 있어 인구 규모에 비례하여 창조계층 인력 수가 증가하지는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인천광역시는 공학전문가 및 기술직종에서, 광주광역시는 보건, 의료, 건강, 사회복지 전문가 분야에서 많은 창조계층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표 5> 광역시별 창조계층별 인력 수 산출 결과(2012년)¹³⁾

단위: 천 명, %

| | 과학및 인문사회 전문가 (21, 22) | 공학전문 가 및 기술직 (23) |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 (25) | 문화예술 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 (28) | 관리자 (1) | 보건, 의료, 건강, 사회복지 전문가 (24) | 경영금융 전문가 및 관련직 (27) | 창조계층 인력 합계 |
|----|--------------------------------|----------------------------|----------------------------|-------------------------------------|--------------|--|------------------------------|------------------|
| 서울 | 227 (15.9) | 152 (10.7) | 282 (19.8) | 201 (14.1) | 119 (8.4) | 234 (16.4) | 208 (14.6) | 1,423 (100.0) |
| 부산 | 16 (5.2) | 46 (15.0) | 77 (25.1) | 23 (7.5) | 38 (12.4) | 74 (24.1) | 32 (10.4) | 306 (100.0) |
| 대구 | 14 (5.7) | 27 (11.0) | 72 (29.5) | 16 (6.5) | 21 (8.6) | 67 (27.4) | 27 (11.1) | 244 (100.0) |
| 인천 | 29 (10.0) | 51 (17.6) | 64 (22.1) | 29 (10.0) | 26 (9.0) | 54 (18.7) | 36 (12.4) | 289 (100.0) |
| 광주 | 6 (4.1) | 18 (12.2) | 46 (31.1) | 10 (6.7) | 9 (6.1) | 46 (31.1) | 13 (8.8) | 148 (100.0) |
| 대전 | 26 (14.5) | 28 (15.6) | 40 (22.3) | 14 (7.8) | 13 (7.3) | 43 (24.0) | 15 (8.4) | 179 (100.0) |
| 합계 | 318 (12.3) | 322 (12.4) | 581 (22.4) | 293 (11.3) | 226 (8.7) | 518 (20.0) | 331 (12.8) | 2,589 (100.0) |

자료: 통계청 홈페이지(KOSIS)의 지역별 고용조사.

주 1) : 두 단위 기준으로는 의료 및 건강 관련직에서 종교 및 사회복지 분야가 분리되지 않아 이 분야까지 포함.

주 2) : 각 직종의 상위 분류는 <표 3>을 참조.

창조계층 인력 분포는 서울특별시와 대전광역시만이 전국에 비해 집중화 성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두 도시 외에는 창조계층 인력의 집중화 논의를 하기에는

12) 2013년 4월 기준으로 서울특별시는 10,185,955명이고 부산광역시 인구는 3,537,758명으로 파악된다.

13) 통계청의 2008-2012 “지역별 고용조사” 통계는 광역시별 3단위 기준의 직종 분류가 불가능하여 <표 3>의 분류와 세부 업종에서 일부가 상이하다는 점이 한계이다.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대부분 지식서비스직종인 창조적 전문가 집단은 대도시 또는 광역시 집중 성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주요 광역시별로 창조계층 인력 분포의 추이를 지역별 입지상 계수 변화로 짐작할 수 있는데 입지상 계수에서는 지역별로 큰 변화는 없지만, 2008년에 비해 계수가 모두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세부 직군별로는 핵심 창조계층 인력의 경우 서울과 대전광역시를 제외하고는 1 이하로 나타났고, 서울특별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5년간 그 계수가 낮아졌다. 따라서 지난 5년간 우리나라 주요 광역시에서 핵심 창조계층 인력은 서울특별시만 집중화 성향이 더욱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표 6> 주요 광역시별 창조계층 인력 분포(2008-2012)

단위: 천 명, %

| | 핵심 창조계층 인력 | | 창조적 전문가 | | 창조계층 인력 합계 | | 지역별 전직종 인구 수 | |
|-------|---------------|---------------|---------------|---------------|-----------------|-----------------|----------------|----------------|
| | 2008 | 2012 | 2008 | 2012 | 2008 | 2012 | 2008 | 2012 |
| 서울특별시 | 822 (16.7) | 862 (17.1) | 509 (10.3) | 561 (11.1) | 1,331 (27.1) | 1,423 (28.3) | 4,908 (100) | 5,026 (100) |
| 부산광역시 | 179 (11.4) | 162 (9.9) | 122 (7.8) | 144 (8.8) | 301 (19.2) | 306 (18.7) | 1,569 (100) | 1,636 (100) |
| 대구광역시 | 128 (11.2) | 129 (10.7) | 93 (8.2) | 115 (9.6) | 221 (19.4) | 244 (20.4) | 1,139 (100) | 1,202 (100) |
| 인천광역시 | 145 (11.3) | 173 (12.2) | 103 (8.0) | 116 (8.2) | 248 (19.3) | 289 (20.4) | 1,285 (100) | 1,415 (100) |
| 광주광역시 | 90 (14.1) | 80 (11.5) | 68 (10.7) | 68 (9.8) | 158 (24.8) | 148 (21.3) | 637 (100) | 694 (100) |
| 대전광역시 | 115 (16.3) | 108 (14.8) | 66 (9.3) | 71 (9.8) | 181 (25.6) | 179 (24.6) | 706 (100) | 728 (100) |

자료: 통계청 홈페이지(KOSIS)의 지역별 고용조사.

창조적 전문가 집단은 모든 광역시가 1보다 높게 나타나 있지만, 5년 전에 비해 부산광역시와 대구광역시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창조계층 인력의 도시 집중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따르며, 다만 창조적 전문가 집단의 도시 집중화가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평가된다.

〈표 7〉 우리나라 창조계층 인력의 입지상 계수 변화 추이

| | 핵심 창조계층 인력 | | 창조적 전문가 | | 창조계층 인력 합계 | |
|-------|------------|------|---------|------|------------|------|
| | 2008 | 2012 | 2008 | 2012 | 2008 | 2012 |
| 서울특별시 | 1.10 | 1.40 | 1.54 | 1.53 | 1.35 | 1.32 |
| 부산광역시 | 0.95 | 0.81 | 1.16 | 1.20 | 0.96 | 0.87 |
| 대구광역시 | 0.94 | 0.88 | 1.22 | 1.31 | 0.97 | 0.95 |
| 인천광역시 | 0.94 | 1.00 | 1.19 | 1.12 | 0.96 | 0.96 |
| 광주광역시 | 1.18 | 0.94 | 1.59 | 1.34 | 1.24 | 1.0 |
| 대전광역시 | 1.36 | 1.21 | 1.36 | 1.33 | 1.28 | 1.15 |

다음은 변이-할당 분석모형을 통해 우리나라의 주요 광역시별 창조계층 직종 인력의 변화를 파악하였다. 앞에서 설명된 변이-할당 분석의 해석과는 달리 여기에서는 인력 수의 증감을 분석하는 것이므로, 두 번째 항목은 직종별 구조 효과(occupational mix effect)이다(Gabe, 2006:398)¹⁴⁾. 경제 전체의 성장효과(NS)¹⁵⁾를 보면, 서울과 대구, 인천광역시는 국가 전체의 고용 성장세로 유발된 것보다 높은 창조계층 인력의 증가를 보였으나 나머지 광역시들은 저조하거나 오히려 감소세를 보였다. 이는 지역성장효과를 나타내는 RS에서도 나타나는데, 2008~2012년 동안 이들 세 대도시에서 타 지역보다 창조계층 인력의 순유입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를 통해 타 지역에 비해 이들 세 대도시가 창조계층 인력에서 지난 5년간 경쟁우위를 보인 것으로 판단되나, 지역내 타 직종 인력에 비해 창조계층 인력의 전문화 성과(AC)는 서울특별시를 제외하고 매우 저조한 것으로 분석된다.

〈표 8〉 변이-할당 기법에 의한 우리나라 창조계층 인력의 분석(2008-2012)

단위: 천 명

| | 2008년 | 2012년 | 증감수 | NS | OM | RS | CAC | AC |
|----|-------|-------|-----|-------|--------|--------|--------|-------|
| 서울 | 1,331 | 1,423 | 92 | 47.44 | -15.44 | 60.00 | 42.29 | 17.71 |
| 부산 | 301 | 306 | 5 | 10.73 | 2.12 | -7.85 | -7.97 | 0.11 |
| 대구 | 221 | 244 | 23 | 7.88 | 4.35 | 10.78 | 10.94 | -0.16 |
| 인천 | 248 | 289 | 41 | 8.84 | 16.25 | 15.91 | 16.94 | -1.03 |
| 광주 | 158 | 148 | -10 | 5.63 | 8.51 | -24.14 | -19.79 | -4.35 |
| 대전 | 181 | 179 | -2 | 6.45 | -0.81 | -7.64 | -5.74 | -1.90 |

14) 본 연구에서 직종구조 효과는 창조계층 인력의 지역별 직종 분류를 세분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조적 효과는 노출되지 않아 의미가 없어 통계 해석은 하지 않았다.

15) 각 지역의 NS는 전국 평균 고용증가율을 각 지역의 창조계층 인력 수 증가분에 곱한 결과 값이다.

IV. 결론 및 시사점

창조계층론은 창조계층 인력이 도시와 지역발전의 중심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이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성장을 추동하는 것이라는 논리로 요약된다. 이에 따라 창조계층 인력에 대한 통계적 산출도 학술적 그리고 정책적 관심을 받고 있음에도 국내에서는 창조경제의 핵심 영역으로 인식되는 창조산업 고용이나 창조계층의 담론에 더 집중해왔다. 본 연구는 창조계층론을 주창한 Florida의 이론을 바탕으로 가능한 국내 통계를 사용해서 창조계층 인력의 통계적 산출을 시도하고, 지역발전이란 관점에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우리나라의 직종별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창조계층 인력의 일자리는 총 취업자 수에 비해 약 두 배의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지식집약형 직종(또는 지식서비스직종)이 몰려 있는 창조적 전문가 집단의 증가세가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도 창조경제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우리나라는 창조적 전문가 집단의 빠른 일자리 성장에도 불구하고, 전체 취업자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예상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가령, 미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창조적 전문가 비중은 절반 이하로 낮다. 창조적 전문가 집단은 핵심 창조계층 인력이 개발한 결과물들을 다양한 분야와 형태로 가치를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집단이다¹⁶⁾. 따라서 우리나라가 창조경제가 주는 혜택을 더 제공 받기 위해서는 지식서비스 직종의 창조적 역량을 높일 필요가 있다. 특히 지역광역시들의 경우 문화예술과 과학 등 순수학문 분야보다는 지식서비스 직종에서 인력 분포 격차가 상대적으로 적을 뿐 더러, 그 증가세도 빠르다는 점에서 지식서비스직종에 대한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2008-2012년간 창조적 전문가 집단의 광역시별 입지상계수가 모두 1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핵심 창조계층 인력은 대부분 1보다 하회하고, 정체 현상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서울특별시의 창조계층 인력은 지난 5년간 증가하였고, 특히 핵심 인력에서 지방광역시들에 비해 높은 집중화를 나타냈다. 이는 핵심 인력들이 지방광역시보다는 지방 중소도시로 분산되었을 가능성도 예측할 수 있다. 가령, 기술직종이나 문화예술직종 등은 임대료나 토지비 등의 부담으로 도심 입지에서 탈피하는 예를 많이 관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우리나라 창조계층 인력에 대한 지역별 변이-할당 분석의 결과를 보면, 지난 5년간 서울과 대구, 인천은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고용 성장효과에 창조계층 인력에서 뚜렷한 증가를 보였으나, 다른 지역은 오히려 감소하거나 미미한 증가에 그친 것으로

16) 예컨대, 게임업은 처음에 핵심 창조계층 인력에 의해 단순한 무료 게임과 약간의 광고수입으로 시작됐지만, 새로운 사업모델로 만들어 엄청난 부가가치 산업으로 자리 잡는 데에는 이들의 역할이 컸다.

나타났다. 그러나 서울특별시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지역내 타 직종들에 비해 전문화가 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지난 5년간 지방광역시들에서 창조계층 인력들의 활약이 지역발전에 획기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것으로 평가된다. 전반적으로 서울특별시를 제외하고는 주요 지방광역시들에서 창조계층 직종의 인력들이 지역발전을 가져오는 긍정적인 유인 요소라는 Florida의 가설이 적용되기는 아직 부족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이대창(2013)의 실증 분석에서도 나타났듯이 아직은 창조계층 직종 인력의 특성이 주는 영향보다는 단순히 대졸이상 학력소지자의 비중이 미치는 영향이 더 뚜렷하다는 결론에서도 일부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주요 광역시들에 있어서 뚜렷한 창조계층 인력의 성장을 찾기는 어려운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에 대한 정책 함의로 하나는 지방의 창조계층 직종 인력에 대한 육성 및 유인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다른 하나로서 지방의 서비스 직종 인력의 창조인력화 방안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는 Florida의 창조계층론은 서비스직종 인력들도 기존 업무의 창조지식화를 통해 창조인력으로서의 전환이 가능하다는 것을 함축한다는 것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플로리다, 2002:142).

본 연구는 Florida의 창조계층 인력 산출을 근거로 우리나라에 적용함으로써 외국과의 비교 가능하도록 했고, 도시 발전의 중추인 국내 주요 광역시를 중심으로 창조계층 인력의 추이와 발전 방향에 대한 대략적인 시사점을 찾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그러나 Florida 분류 역시 창의성 기준에 대한 학자들의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국가간 비교를 위해서는 심층적인 기초 연구가 따라야 할 것이다. 또한 창조계층 인력이 지역발전을 유도한다는 논의를 검증 없이 전제했다는 점과 지역별 창조계층의 고용추이에 대한 원인을 설명하기 어려운 연구방법론을 적용했다는 점에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참고문헌】

- 강익희 외. (2010). 「콘텐츠 산업의 창의인력육성과 일자리창출 방안에 관한 연구」. KOCCA 연구보고서 10-51, 한국콘텐츠진흥원.
- 구문모·박정수. (2013). 「우리나라 창조계층 인력의 추이 및 서비스직종의 창조인력화 방안」. 정책자료 2013-198, 산업연구원.
- 김영수. (2013). 창의계층의 산업별·지역별 추이와 정책적 시사점, 『KIET 산업경제』, 산업연구원.
- 김준홍. (2012). "Richard Florida의 창조도시 이론의 한국적 수용에 대한 비판적 고찰: 창조계층의 장소 선택을 중심으로". 『문화정책논총』, 26(1).
- 김필수 외. (2013). 창조직업의 고용확대가 창조경제의 관건이다!. 『VIP Report』, 현대경제연구원.
- 리처드 플로리다. (2002). 『신창조계급』. 이길태 옮김, 서울: 북콘서트.
- 리처드 플로리다. (2008). 『도시와 창조계급』. 이원호, 이종호, 서민철 옮김, 서울: 푸른길.
- 신성희. (2006). 창조계급 및 창조도시들의 분포특성과 창조적 도시조성 방안의 시사점. 『공간과 사회』, 한국공간환경학회, 제25호.
- 이대창. (2013). 창조직업과 지역발전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 『고용과 직업연구』, 제7권(1). 한국고용정보원.
- 이영철. (2009). "창조계급과 창조도시: 중소도시발전에 대한 함축. 『한국거버넌스 2009년 추계 학술대회자료집』, pp. 23-41.
- 정선기. (2009). 「창조계층 유인을 위한 대전의 문화정책」. 기본연구보고서, 대전발전연구원.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KOSIS.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1List.jsp?vwcd=MT_ZTITLE&parentId=B.
- 허재완 외. (2012). 창조산업의 공간적 분포특성에 관한 연구. 『지방행정연구』, 제26권 제4호, pp.245-274.
- Baycan-Levent. T. (2010). "Diversity and creativity as seedbeds for urban and regional dynamics", *European Planning Studies*, 18(4): 565-594
- Bell. D. (1973). *The Coming of Post-Industrial Society*. New York: Basic Books.
- Boix. R. Lazzeretti. L. Capone F. de Propriis. L. Sánchez. D. (2010). The geography of creative industries in Europe: comparing France, Great Britain, Italy and Spain, Paper presented at the 50th Anniversary, European Congress of the Regional Science Association International

- (ERSA), on the Sustainable Regional Growth and Development in the Creative Knowledge Economy, Jököing, Sweden, 19 - 23 August 2010.
- Boschma. R. Fritsch. M. (2009). "Creative Class and Regional Growth: Empirical Evidence from Seven European Countries", *Economic Geography*, 85(4): 391-423.
- Clark. D. (2009). "Crunching creativity: an attempt to measure creative employment", *Creative Industries Journal*, 2(3): 217-230.
- Clifton. N. (2008). "The creative class in the UK: an initial analysis", *Geografiska Annaler Series B*, 90 (1): 63-82.
- Clifton. N. Cooke. P. (2009). "Creative knowledge workers and location in Europe and North America: a comparative review", *Creative Industries Journal*, 2(1): 73-89.
- Cruz. S. Teixeira. A.C. (2012). "Methodological approaches for measuring the creative employment: a critical appraisal with an application to Portugal", *FEP Working Papers*.
- Curran. D. Van Egeraat. C. (2010). *Defining and valuing Dublin Creative Industries (NIRSA), Working Paper Series. No. 57. Ireland: NIRSA - National Institute for Regional and Spatial Analysis.*
- 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 (DCMS). (1998). *Creative Industries Mapping Document 1998. London: UK DCMS.*
- 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 (DCMS). (2001). *Creative Industries Mapping Document 2001. London: UK DCMS.*
- 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 (DCMS). (2010). *Creative Industries Economic Estimates - December 2010 (Experimental statistics) - Full Statistical Release. London: UK DCMS.*
- Donegan. M. and N. Lowe. (2008). "Inequality in the Creative City: Is There Still a Place for Old-Fashioned Institutions?", *Economic Development Quarterly* 22(1): 46-62.
- Esteban-Marquillas. J. M. (1972). A reinterpretation of shift-share analysis, *Regional and Urban Economics*, Vol.2, pp. 249-255.
- Florida. R. (2002). *The rise of the Creative Class - and How it Transforming Work, Leisure, Community and Everyday Life. New York: Basic Books.*
- Florida. R. (2007). *The Flight of the Creative Class: the new global competition for talent, New York: HarperCollins.*

- Fritsch. M. Stuetzer. M. (2009). "The geography of creative people in Germany, *International Journal of Foresight and Innovation Policy*", 5 (1/2/3): 7-23.
- Gabe. T. (2006). "Growth of Creative Occupations in U.S. Metropolitan Areas: A Shift-Share Analysis, *Growth and Change*", 37(3): 396-415.
- Gibson. C. N. Klocker. (2005). "The 'cultural turn' in Australian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discourse: neoliberalising creativity?", *Geographical Research* 43, pp. 93-102.
- Glaeser. E. (2005). "Review of Richard Florida the rise of the creative class", *Regional Science and Urban Economics*, 35(5): 593-596.
- Grodach. C. (2011). Before and after the creative city: the politics of urban cultural policy in Austin, Texas, *Journal of Urban Affairs*.
- Herzog. H.W. & R.J. Olsen. (1977). "Shift-share analysis revisited: The allocation effect and the stability of regional structure", *Journal of Regional Science*, vol. 17, pp. 441-454.
- Higgs. P. Cunningham. S. (2008). "Creative Industries Mapping: Where have we come from and where are we going?", *Creative Industries Journal*, 1(1): 7-30.
- Lamache. R.H. Srinath. K.P. & Ray D.M. (2003). "Correct partitioning of regional growth rates: Improvements in shift-share theory", *Canadian Journal of Regional Science*, vol. 14, pp. 121-141.
- Markusen. A. (2006). "Urban Development and the Politics of a Creative Class: Evidence from the Study of Artists", *Environment and Planning A*, 38 (10): 1921-1940.
- Markusen. A. and Gadwa. A. (2010). "Arts and Culture in Urban/Regional Planning: A Review and Research Agenda". *Journal of Planning Education and Research*, 29(3): 379-91.
- McGranahan. D. Wojan T.(2007). "Recasting the Creative Class to Examine Growth Process in Rural and Urban Counties", *Regional Studies*, Vol.41.2, pp.197-216.
- Peck. J. (2005). "Struggling with the Creative Class",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29(4). pp. 740-770.
- Pratt. A. C. (2008). "Creative Class: The Cultural Industries and the Creative Class", *Geografiska Annaler: Series B. Human Geography* 90(2), pp. 107-117.

- Reese. L. A. Faist. J. M. & Sands. G. (2010). "Measuring the Creative Class: Do we know it when we see it?", *Journal Of Urban Affairs*, 32(3), pp. 345-36
- Reich. R. (1992). *The Work of Nations: Preparing Ourselves for 21st Century Capitals*. Vintage Books.
- White. P. (2010). "Creative industries in a rural region. Creative West: the creative sector in the Western Region of Ireland", *Creative Industries Journal*, 3(1): 79-88.

구 문 모: 미국 아이오아주립대학교 경제학박사(The measurement of market power, 2007), 현재 한라대학교 교수. 주요관심분야는 창조산업, 콘텐츠유통, 문화 관련 지역개발 등이며, 최근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 영화 배급 및 마케팅 핸드북(2013, 해남), 공연예술 기업의 지적 자본, 기업가적 지향성과 기업 성과의 관계(2012, 공저, 문화정책논총), 문화 중심 지역개발 사업의 창조생태계적 접근과 정책적 함의(2012, 문화경제연구)가 있다(mgoo@halla.ac.kr).

박 정 수: 고려대학교 경제학박사(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혁신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2012), 현재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주요관심분야는 서비스산업, 콘텐츠산업, 서비스혁신 등이며, 최근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서비스산업 전략과제(2013, 공저, 산업연구원), 서비스산업 고용구조와 일자리 창출 전략(2012, 공저, 산업연구원), 한국 서비스기업의 대중국 현지화 전략(2012, 공저, 산업연구원)이 있다(jspark@kiet.re.kr).